

세종시-사우디아라비아 경제교류 협력기반 구축한다

최민호 시장,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접견



최민호 세종시장이 20일 시청 세종실에서 사미 알사드한(Sami M. Al-Sadhan)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만나 시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우호증진과 경제·지능형 도시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세종시 방문은 이번이 첫 번째로 세종시의 글로벌 스마트 미래 전략 수도 조성을 위한 협력과 교류의 첫발을 뗀다는데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22년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공식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국빈 방문을 하는 등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날 최 시장은 사미 알사드한 대사에게 지능형도시, 정원관광,

한글문화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래 전략수도 세종시의 도시미래상을 설명했다.

또 탈석유·첨단기술·친환경 부문을 포함한 '사우디 비전 2030'과 관련해 세종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6년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보건, 인프라, 관광 분야 등의 육성을 통한 경제 다각화로 국가 성장을 이루겠다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현재는 새로운 미래를 구현하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면적 2만 6,500㎢, 총사업비 671조 원, 100% 재생에너지로 운용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능형도시 '네옴(NEOM)'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세종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지능형도시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미 알사드한 대사는 "한국과 사우디 간 체결한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각서'와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방문에 따라 43년 만에 이뤄진 공동성명은 양 국가가 중요한 경제 동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사우디와 세종시가 미래 지향적 지능형도시 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 착안해 앞으로 사우디와 세종시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태선기자

병원 이탈 전공의 728명 업무개시명령

비상진료 참여 전공의 추가보상...전문응급의료센터 수술수가인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실효성이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장비 등을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가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인턴이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될 경우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실시

한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비상진료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역 전문응급의

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수율 수가도 올려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 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관은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박 부본부장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안과 우려가 있으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절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오늘 출시... 연 4.5% 이자소득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월 100만 원까지 납입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저축

민기에 수령한 복권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한정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자의 대출 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지난해 가계빚 1886조원... 또 사상 최대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빚)이 18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18조8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 아래 역대 세 번째로 낮았지만 가계가 젊어진 빚이 쌓이면서 가계빚은 사상 최대가 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과 카드, 백화점 등 판매 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8조8000억 원이며 2022년 증가폭(4조6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다만 가계신용 증가폭은 2003년(7조3000억원)과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분기 기준으로는 3분기 말에 비

해 8조원 증가했다. 3분기 연속 증가세지만, 전 분기(17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조8000억원 늘며 증감률은 1.0%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은 직전년도(1749조8000억원)에 비해 18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가계대출이 감소한 2022년(-7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면연간 기준 통계 작성 아래 가장 작은수준이다.

분기별로 보면 3분기 말(1761조 7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한 17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 분기 증가폭(14조4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기타금융기관은 전 분기보다 8조 7000억원 줄어들면서 전 분기(-2조9000억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증권사 신용공여액 감소 등에 따른 영향이다.

기타금융은 예금은행은 주담대 취급이 늘면서 3분기 10조원에서 4분기 11조4000억원 증가로 규모가 확대됐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기

다만 증가폭은 전 분기(17조3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기타금융기관은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문화에 증권사 대출이 감소로 전환하면서 9조2000억원 증가에서 1조원 증가로 확대폭이 축소됐다.

판매 신용은 신용카드 이용규모 확대에 따라 여신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1년 전보다는 4000억원 늘었다.

김정환기자

이정복기자

청년마음건강연구소 C-LAB 씨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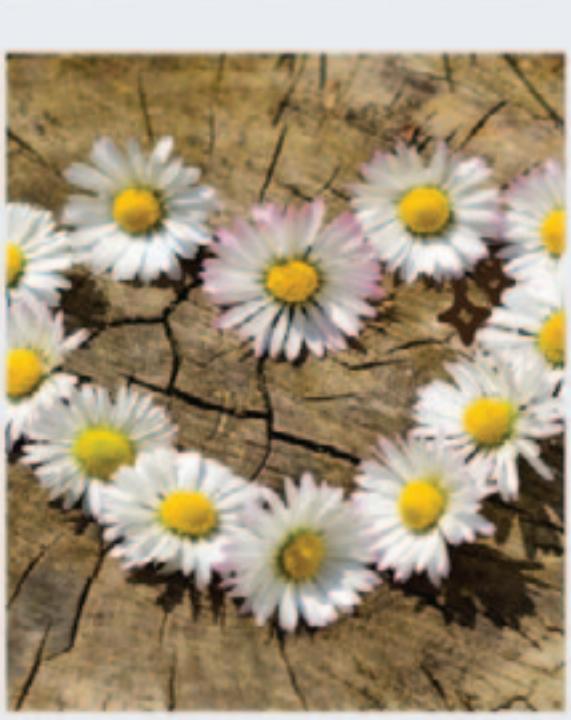
내 마음도 미리 검진하세요 [성향검사 / 팀빌딩 / 강연 / 온라인상담]

instagram 인스타 @c.lab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씨랩마음단지

1. 개인
온라인성향검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1대1상담
진로상담, 성격상담, 심리상담

2. 팀
팀빌딩 (MBTI / 버크만)

3. 강연/강의 (학교/복지센터/센터/중소기업/기타단체)
진로 / 스트레스 / 마음건강기획_테마에 따른 / 성향·성격 등



C-Lab
청년마음건강연구소
문의)
네이버 블로그/인스타 DM
메일-clablab_10@naver.com
문자전화-070-8098-1834

대전시, 일류안전도시 '순항중'

2023년 지역안전지수 자살분야(5→2등급), 교통사고분야(4→2등급) 향상

2023년 지역안전 지수 평가 결과 대전시의 자살분야 및 교통사고분야 등급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별, 시군별 2023년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대전시는 평균 3등급(2022년도 평균 3.7등급)으로 교통사고 2등급, 화재 4등급, 범죄 5등급, 생활 안전 2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3등급의 성적을 냈다.

우선, 자살 사망자는 약국 등

213개 협력 기관 운영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전담공무원 증원(5→7명), 주민 건강행동 실천율 증가 등 자살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22년 대비 54명(425→371명) 감소하여 5등급에서 2등급으로 크게 향상됐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교통사고가

잦은 구역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 시설 정비 및 주요도로 인근 횡단보도와 교차로 조명 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10명(57명→47명)이 감소하고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개선 정도 우수지역(6개 분야 중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상승)으로 동구가 선정됐으며, 안전지수 양호지역(6개 분야에서 하위등급(4, 5등급)이 없는 지역)으로 서구와 유성구가 선정됐다.

다만 범죄분야 지수는 4등급에

서 5등급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인

구대비 자살방법대원과 아동지킴이 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앞으로 경찰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임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지수가 낮은 취약 분야(화재, 범죄)를 집중분석·개선하여 일류 안전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서산시의회, 2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집행부 설명자료 8건, 의원 협의사항 7건 등 15개 안건 사전 협의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2월 20일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8건, 의원 협의사항 7건 등 총 15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미래전략담당관),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지 매입 계획(투자유치과), ▲서산시 지원회수시설·환경종합타운 주민지원협의체 통합(지원순환과), ▲서산 나루리(바우처) 택시 운행(교통과) 등 8개 사업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의회 의원 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상 안효돈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으로 총 14개의 조례안이 포함됐다.

한편, 김맹호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조례 발의를 비롯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라며 "제292회 임시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면밀하고 꼼꼼하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제21대 국회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철저히 임해야"

금의장, 19일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5월 29일)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법안 처리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후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스포츠 선수들은 은퇴 후 에야 현역시절을 뒤돌아보며 비로소 자신의 전성기가 언제였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며 "지난 3년 8개월 동안 제21대국회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3개월 반이라면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4월 10일(제22대) 종선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나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결손해지는 50일 남짓의 시간이 주어진다"며 "같은 기간 제18대국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비롯해 인건 66건을 처리했고 제19대국회 135건, 제20대국회에서는 20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밝힌 ▲저출생 정책의 현행 명시 ▲국민 참여 개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헌절차법 제정 ▲선거구획정 기간선거일 전 1년→

6개월) 현실화 ▲국회 예산안 심사권 강화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개선(사법위원회·입법 위원회로 이원화) 등을 아젠다로 제시하면서 여야가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5월에 새로 구성될 제22대국회에서는 의회주의가 만발한, 의회주의의 브리핑 시대를 열어가는 국회를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며 "오늘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자"고 마무리했다.

국회=김성구기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의회 구성 논의

송활섭 운영위원장, 충청권지방정부연합 규약안) 관련 의견수렴 및 향후계획 논의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개최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의회 구성성을 위한 '제4차 충청권 4개 시·도의회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그간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의와 4개 시·도의회의 연계·협력 방안 등 논의를 위해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충청권지방정부연합 규약안 관련 의견수렴과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송활섭 운영위원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4개 시·도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충청권 공동의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기후정치비람>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담긴 지역별 기후유권자 목소리 분석

4.10 총선 앞서 광역시도 17곳 기후유권자 목소리 공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을 앞두고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 참여로 구성된 <기후정치비람>이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1만7000 유료표본에 담긴 지역별 기후유권자 목소리를 분석해 광역시도 17곳 각각에 대한 지역별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기후정치비람>이 20일 로컬에너지랩 누리집(locallenergywork)에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지역별 결과보고서 17부를 공개한다.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 관련 정보 인식 및 기후민감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및 판단 ▲기후위기 관련 정책 인식 ▲기후위기 대응 책임 및 평가 ▲지역 이슈 인식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이 포함됐다.

<기후정치비람>이 의뢰하고 조사기관 메타보이스(주)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주관한 인

식조사는 지난해 2023년 12월 1일부터 27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 대상(전국 광역시도 17곳에서 각 1000명)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지역별 결과보고서는 2024 총선 결과를 바탕 기후유권자들은 이번 행사를 참여해 예비 국회의원 제3제미나실에서 '2024 총선 결과'에 대한 지역별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후유권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예비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 기후입법공약이 무엇인지 밝힐 계획이다. 이번 집담회는 <유튜브> '로컬에너지랩_지역에 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기후정치비람>은 이번 집담회 이후 울산, 인천을 비롯해 지역별로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설명회와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이낙연, 11일 만에 이준석과 결별...개혁신당 합당 철회

이낙연·이준석 공동 대표가 20일 길라셨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로운 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철회했다. 통합 선언 11일 만이다.

이낙연 대표는 "머리 속에 사과드린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끝나려운 결말을 낳았다"고 밝혔다. 또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험받게 됐다"

며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다시 새로 운 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의 결별 선언 후 1시간 뒤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내놨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만큼은 앞으로의 혼란과 보이는 국민에게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며 "침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證明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달 9일 새로운 선택(금태섭), 원칙과 상식(이원욱) 등 이른바 제3지대를 추진하는 세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과 합당한 바 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했다.

한편 제247회 임시회는 20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1일부터 3일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19일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에서는 22건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김희영 의장은 "2024년 갑진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하는 이번 임시에서 시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통해 시의회의 역할을 다했던 당부했다.

분회의에 앞서 전남수 의원의

'아산시 공정한 인사를 위해 드리는 말씀', 천철호 의원의 '철저히 소외된 아산시민, 누구를 위한 신년 음악회인가?', 이기애 의원의 '아산시 사회복지 정책과 그에 따른 집행부 조직 확충에 관한 제언', 명노봉 의원의 '학교급식, 새 학기 친절없이 운영되는가'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아산=리량주기자

아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22건 심사 및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19일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에서는 22건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김희영 의장은 "2024년 갑진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하는 이번 임시에서 시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통해 시의회의 역할을 다했던 당부했다.

분회의에 앞서 전남수 의원의

'아산시 공정한 인사를 위해 드리는 말씀', 천철호 의원의 '철저히 소외된 아산시민, 누구를 위한 신년 음악회인가?', 이기애 의원의 '아산시 사회복지 정책과 그에 따른 집행부 조직 확충에 관한 제언', 명노봉 의원의 '학교급식, 새 학기 친절없이 운영되는가'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다.

정 전 장관이 중앙당 인재영입을 통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터에 '낙하산 공천설이 제기됐지만 결론적으로는 경선을 치르게 됐다.

충청권에선 충남 천안을, 천안·논산·계룡·금산 3곳이 경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천안을·병, 논산계룡금산 '2인 경선' ...이인제 컷오프

천안을 이정만 vs 정황근·천안병 신진영 vs 이청수

국민의힘이 19일 충남 천안을과 천안병, 논산·계룡·금산에서 2인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명의 단수 공천 대상자와 경선을 치를 17개 선거구, 우선추천 지역 1곳 등을 발표했다.

충청권에선 충남 천안을, 천안·논산·계룡·금산 3곳이 경선

을 치르는 지역구에 포함됐다.

천안을 지역구에선 이정만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과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맞붙는다.

정 전 장관이 중앙당 인재영입을 통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터에 '낙하산 공천설이 제기됐지만 결론적으로는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년고용촉진 특별법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p



▲ 안동순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일 오전 대전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천안을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정착 시키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K-컬처 박람회 · 흥타령 축제 성공으로 천안을 국제문화도시로 정착”

안동순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천안을 대표하는 천안 흥타령축제 성공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개최한 K-컬처 박람회를 내실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제적인 행사로 카워 나갈 계획입니다.”

안동순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일 오전 대전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천안을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지난 2022년 8월 11일 제4회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안동순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교육,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다.

◇ 다음은 안동순 대표이사와의 일문일답.

▲ 대표이사로 취임하신지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벌써 1년 6개월이나 되었다는게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1년 6개월동안 벌써 흥타령축제를 2번이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부·성환문화회관 위탁 운영을 새롭게 시작했고, 남산문화창작소, 천안역사전시관 운영 등을 지역에 다양한 문화인프라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사, 축제, 예술인 지원사업 등과 같은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명소조성사업 ‘신부르네상스 존’을 운영하여 신부상인회 및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전국 댄서들이 참여하는 전국 스트리트 댄스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있을 K-컬처 박람회를 앞두고 지난해 비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보완하며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K-컬처 박람회 외에도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들도 하나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역문화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아무래도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2023 천안 흥타령축제를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2023년 천안 흥타령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로 직·간접 경제효과는 433억 원에 달하고 87만여 명에 달하는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참여형 콘텐츠인 마춤대첩과 흥이 춤이 댄스 배틀 등과 같이 새로운 시도를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2022년도에 비해 더 많은 국제팀 초청을 통해 문화적으로 좀 더 융성한 축제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K-컬처 박람회 지원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과 K-POP 관련 커버 댄스 등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2023 문화예술명소 조성 사업인 <신부르네상스 존>을 상·하반기 진행하여 <문화도시 천안>, <젊은 도시 천안>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신부문화공원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초석을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 천안시의 대표 축제인 ‘흥타령축제’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요?

비결은 천안문화재단이 축제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 노력이 뒷받침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하고,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천안문화재단이 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 노력을 알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재단 직원들이 힘을 내서 다같이 축제를 준비해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기 있었던 부분들을 확대했던 것, 새로운 시민 참여형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성공의 요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FIDAF를 통해 국제 협력을 늘려서 시민들에게 인기 있었던 콘텐츠와 다양한 문화체험 부분들도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과제로는 더 발전된 모습과 글로벌 춤축제에 걸맞는 축제를 위해 국제 춤 경연대회 30개국의 참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세계 트렌드에 맞게 국제 스트리트 댄스 대회를 신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요?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는 2023 박람회와 달리 천안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여 준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여년간 흥타령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천안문화재단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박람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박람회 운영 및 전시 대행사 선정과 함께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편의시설, 인프라 및 자원봉사자 인력배치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준비해 완성도 있는 박람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올해 특별히 달라진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답 :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에 공연 위주의 콘텐츠가 주를 이뤄 전시분야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주제, 웹툰, 푸드, 뮤티 4개 전시관을 조성하여 산업별 K-컬처 과거, 현재, 미래를 전시분야에 특화를 할 예정입니다. 주무 대 공연에서는 관객모집 위주의 대형 K-POP 공연대신 K-POP의 역사와 의미를 관람객들에게 느끼게 해 줄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K-POP 콘서트인 더 월드를 펼쳐 K-POP의 깊이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댄스에 한정된 경연대회에서 보컬과 댄스로 영역을 넓힌 K-POP 월드 오디션과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키즈 체험존, 어린이 뮤지컬, 웹툰체험, 포토존 조성 등을 통해 다채로운 박람회를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할 예정입니다.

▲ 천안시의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하다는 평가가 있는 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문화인프라가 열악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지만, 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이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히 문화인프리를 구축하고 확장해나간다면 문화인프라가 매우 뛰어난 천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문화도시 천안을 타이틀 삼아 한발 두발 내딛고 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천안예술의전당, 천안시립미술관,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뿐 아니라 신부·성환문화회관, 남산문화창작소, 지역사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작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매년 꾸준히 문화인프라 구축과 신규 시설들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K-컬처 박람회 운영, 흥타령축제와 같은 행사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각 시설들의 안정적인 운영

과 천안시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 인프라가 조금 더 빠르게 형성되고,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이 더 빠르게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천안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큰 테두리에서 문화예술뱅크를 운영하여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뱅크를 통해 천안지역의 숨어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들을 활용하여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을 통해 천안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 부분은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공연 지원부분은 버스킹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부분은 문화매개자 인력양성사업, 아카데미 운영 등을 하고 있고,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까지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을 모두에게 빠짐 없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천안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안에서 문화와 관련된 공직생활을 오래하였고, 지금 현재도 문화예술의 메카인 천안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사항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민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드리고, 시민 문화인구충족을 위해 천안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가, 문화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면서, 천안예술의전당, 천안시립미술관,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성환 및 신부문화회관, 남산문화창작소 등 문화시설과 인프라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안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고품격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예술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 힐링을 드릴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저와 천안문화재단 모든 직원들이 언제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 이정복 편집부국장 · 정리 = 김정환 기자

●정정●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박희조 동구청
장 = 21일 오
전 11시 동구
아름다운복지
관에서 열리
는 2024년 정
월대보름 척사대회 및 부령 나눔
행사 참석.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회



정용래 유성구
청장 = 21일
오전 11시 30
분 유성컨벤
션에서 개최
되는 환경 공
부직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
회 참석.

혁신평가 시상식



최충규 대덕구
청장 =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WFP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에
참석.

돌봄지원 체계 강화
유성구 업무협약 체결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19일 유성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기본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공개모집을 통해 ▲대전노인통합지원센터 ▲성모간호요양센터 ▲조은노인복지센터 ▲효행복지센터 ▲열린부모마동조합 ▲아름다운 청춘건강한 먹거리센터 ▲유성지역자활센터 ▲유성 애벤처필요양원 ▲한남묘양병원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등 총 10개의 제공기관을 선정했다.

구는 이번 협약으로 ▲일시재가(가사자 지원) ▲이동지원(병원 등 외출 지원) ▲영양급식(맞춤형 식사지원) ▲주거편의(주거 수리·수선, 방역 등) ▲단기보호(퇴원환자 등 단기 보호) 서비스를 돌봄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7월 이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구 통합지원위원회를 거쳐 지원한다.

한편 유성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욕구에 맞는 의료, 요양, 복지, 주거개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살기 좋은 돌봄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2024년 기업 유치 힘찬 출발

市, 국내 강소기업 9개 사와 1,182억 원 업무협약 체결

2024년 갑진년 대전시의 기업 유치 성과가 푸른 용처럼 비상하고 있다.

대전시는 20일 오후 2시 대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내 강소기업 9개 사와 1,182억 원 규모 투자, 25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동 노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을 비롯한 ▲주니어스랩 최재혁 대표 ▲주디에스전자 임병옥 대표

▲주디엔비 도용환 대표 ▲주아람 김진태 대표 ▲주진솔러보기계 이시우 대표 ▲주クト로맥스 하덕주 대표 ▲주웨이 김성현 대표 ▲파이버 퍼스㈜ 김원영 대표가 참석했다.

▲주네스엔텍(대표 이기성)은

부인 항공기 연구를 시작으로 무인항공기만 설계하는 연구개발 중심 방산기업으로 군사용 다목

적 드론 연구 및 양산시설 확장에 따라 대덕구 대전산단으로 신설 투자한다.

▲주니어스랩(대표 최재혁)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비행 드론을 기반으로 풍력 발전기 등 산업시설 안전 점검 솔루션과 서비스 플랫폼을 공급하는 업체로 대덕구 대전산단으로 신설 투자를 결정했다.

▲주디에스전자(대표 임병옥)는 전략형 RF기술로 AESA 레이다 등 군수용 시스템, 5G 통신등 무선통신 등에 활용되는 RF 부품·모듈·기기 개발 및 제조기업으로 꾸준한 양산시설 및 기술 개발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유성 장대산단으로 이전 투자한다.

▲주디엔비(대표 도용환)는 군용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내부 화재 시 자동소화 장치 시스템, 주·야간 카메라 및 거리측정 기개발 생산하는 방산업체로 대전 지역 방산업체들과 연구개발 및 양산 협력을 확장하기 위해 대덕구 대전산단으로 이전 투자를 결정했다.

▲주웨이(대표 김진태)은 대형 마트 푸드코트에서 멱볶이와 각

종 음식 조리 제공 사업, 멱볶이 소스 및 밥효식 식혜 생산, 자체 브랜드 ‘삼시오끼’ 런칭 및 즉석조리식품 개발에 따른 양산시설 확장에 따라 서구 평촌산단으로 이전 투자하기로 했다.

▲주진솔러보기계(대표 이시우)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첨단제품의 가스터빈 엔진 및 터보 기계 시스템을 연구 개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유성 신동산단으로 이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주クト로맥스(대표 하덕주)은 항공기용 전기식 구동, 제어장치 설계, 제조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항공기용 일체형 전기식 작동기 국산화 성공에 따라 양산시설 확장을 위해 유성 장대산단으로 이전 투자한다.

▲주웨이(대표 김성현)는 R&D 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재료 회사로 디스플레이(LCD, OLED, LED) 및 반도체용 감광성 재료 연구와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 공장 확장 필요에 따라 유성 둔곡산단에 신설 투자를 결정했다.

▲파이버 퍼스㈜(대표 김원영)

는 광선로 작업 현장, 광인터넷 통신 현장에서 사용하는 광섬유 움직임 속도, 광섬유 절단기, 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로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 수출로 달성하며 제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덕구 대전산단으로 이전 투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투자 기업이 발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500만 평+ α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에도 대전시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들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9개 기업 대표들도 “서구평촌, 대전, 장대 등 순차적으로 분양 예정인 산단에 이전 및 신설 투자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계속해서 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 하기 최적인 도시 대전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제품 생산 확대로 많은 이익을 창출하여 대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경제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라고 화답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홍사단 제30대 이택용 대표 취임

의 말씀을 드린다. 격려를 해야 하는 자리지만 대전홍사단에 오면 늘 격려를 들 받고 간다. 단우님들을 만나 뵙게 되서 영광”이라며 “나라 안과 밖이 많이 어려운 지금 홍사단이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인재양성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단우 여러분들이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택용 대표는 충남 부여 태생으로 사회복지사 및 한류 산업 석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체육학 박사과정에 있다. 주다 터조앤리 대표(이사)와 함께 서대전세무서 세정자문위원, 둔산소방서 센터리 119전센터 의용소방대장, 대전복지민도례 서구협의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홍사단(興土團)’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민간단체. 민족운동 단체로 올해 창립 111주년을 맞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무실, 역행, 종의, 용감의 4대 정신을 통해 국권 회복과 부국강병을 위해 혼신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창립한 단체이다.

송병배기자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식 개최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추가 개원 예정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빈)는 19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5개소는 위탁체 선정 심의를 거친 재위탁 어린이집 3개소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신규 어린이집 2개소이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은 2024년 준공예정인 선화동 해도모더센트리아파트와 하늘채스카이엔

1차 아파트 단지내 관리동에 위치하며, 각각 올해 6월과 10월 개원 예정이다.

중구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추가 개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22개소로 증가하며,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빈 권한대행은 “위수탁 협약식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당



부하였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아

이를 기를 수 있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구, 공약 이행률 52.2% 달성

2024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20일 서구청 장래산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단장 명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에 따르면 서구는 2023년 말 기준으로 69개의 공약사업 중 36개를 완료해 52.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구는 이같은 결과를 교통·교육·건강·문화예술 등 구민들

의 삶과 직결된 부분을 우선에 두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4건의 변경 공약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확대를 통한 구민 가치 증진과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목표로 변경 공약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

인 운영, 공약사업 이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구민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 등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공약이행률을 높이는 데 중종 달라고 주문했다.

박제희 부구청장은 “민선 8기 후반기는 그동안 뿐린 씨앗이 열매 맺도록 하고 수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중장기 사업이 안정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사전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대전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맞손

로했다.

복수경 센터장은 “양 기관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도움이 필요 한 장애인 근로자들이 건강한 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2018년 5월 보건복지부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진료·재활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송병배기자



공하고자 한다. 또, 자연생태관은 여전 재질의 노후 바닥재를 전면 교체해 이용객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지

형에 장미와 정원 소품을 활용해 쌓아지는 장미경관을 연출한 장미 언덕 등 27종 3,400주의 장미를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정정●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김태호 충남도지사= 21일 오전 10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5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

제59회 대의원 정기총회



최재구 예산군수= 21일 오후 2시 30분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사)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 제59회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이용록 흥성군수= 21일 오후 10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5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

과수농가 철저한 방제 관리 당부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가 최근 기온이 상승하는데 따라 관내 과수원 농기에 철저한 방제 관리를 당부했다.

기계유유제는 병해충 밀도를 낮추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포하는데, 살포 적기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다.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후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꼬마배나무이, 까지벌레류, 화상병 등 주요 병해충으로 인한 배과수원의 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꼬마배나무이는 나무껍질 밑에서 월동하는 비율이 높아 방제를 위해서는 나무껍질을 제거하는 조리 작업과 기계유유제 적기 살포로 초기 병해충 발생의 밀도를 줄여야 한다.

특히 해충이 알을 낳기 위해 나무 위로 오르는 시기에 맞춰 물 500ℓ당 기계유유제를 12.5~17 ℥ 씩(약 30~40 배) 희석해 살포하면 방제에 효과적이다.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은 “오는 26일까지 기온이 따뜻한 날에 약제 살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추후 생육기 방제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월동 직후 적기 방제로 초기 밀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안영호 응봉면 명예면장

예산군에 고향 사랑 기부금 기탁

예산군은 지난 19일 안영호 응봉면 명예 면장이 고향 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안영호 명예 면장은 대전 중구 출신으로 지난 1월 제6대 응봉면 명예 면장으로 위촉 됐으며, 죽영신에 프랜시스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고 2022년 예산군 기업인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안명예 면장은 응봉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민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성금 기탁 등 평소 지역 복지 발전과 공동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안영호 명예 면장은 “응봉면민과 예산군 발전을 위해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향 사랑 기부제는 예산군과 같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비록 고향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예산군에 기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 기자

내년 정부예산 ‘11조 시대’ 온다

충남도, 라이즈 1000억 · 대산~당진 고속도 2360억 · 경찰병원 214억 등

올해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찬충남이 내년 국비 11조 원 돌파를 목표로 잡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완료와 유보통합 등 녹록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 과감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지역 발전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아간다는 각오다.

오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호 지사와 실국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부 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10조 2130억 원보다 7870억 원 많은 11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도 핵심 과제 사업 △전 빌률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진행 중인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업 선정 · 통과 등 민선8기 가시적 성과 창출로 잡았다.

또 △22대 국회 출범에 따른 지역 국회의원 공조 △2024년 대규모 SOC 사업 완료 및 유보통합 대응 마련 등도 기본 방향으로 내놨다.

목표별 주요 사업 및 내년 확보 목표액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E) 사업 1000억 원 △착용로봇 혁신 생태계 실증 사업 30억 원 △자유 형상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구축 54억 원 △대산~당진 고속도로 2360억 원 등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2~3월 실국별 부처 정책 간담회 △4~5월 지하부 부처 방문 활동 △6~8월 부처 반영 상황 보고회,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조정 도정 설명회,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펼친다.

9월부터는 정부예산안 최종 반영 보고, 국회 캠프 운영, 지하부 국회 방문 활동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태호 지사는

“민선8기 힘찬충남은 정부의 긴축

예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30억 원 △아산 경찰병원 건립 214억 원 등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23억 원 △내포신도시 스포츠카지센터 건립 2억 원 △장항국 가습지복원 사업 685억 원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31억 원 등을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도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2~3월 실국별 부처 정책 간담회 △4~5월 지하부 부처 방문 활동 △6~8월 부처 반영 상황 보고회,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조정 도정 설명회,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펼친다.

9월부터는 정부예산안 최종 반영 보고, 국회 캠프 운영, 지하부 국회 방문 활동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태호 지사는

“민선8기 힘찬충남은 정부의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미래성장 사업을 대거 반영시켜 올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의 지속된 건전재정 기초 유지와 올해 대규모 SOC 사업 완료, 8월 유보통합 예산 등 정부예산 규모 감소로 내년 국비 확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민선8기 성과 창출을 위해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하고,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전략사업 밸류, 대형 SOC 사업 적기 추진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도지사를 비롯한

지하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발로 뛰겠다”라며 “현재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중점 사업들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실국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환 기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홍성군, 605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홍성군이 오는 2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약 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605대의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미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주시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공고/고시)를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환 기자

예산군, 천연기념물 황새 복원 ‘총력’

아생 방사 황새 체계적 관리 및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 앞장



예산군이 올해로 황새 복원 9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천연기념물 황새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5년 광시면에 설립된 예산 황새 공원은 국내 대표 황새 복원 시설로 황새 사육, 황새 방사 모니터링, 서식지 복원에 관한 연구, 생태 교육, 생태 체험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예산군 황새 사육 및 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사업은 박사급 황새 전문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팀과 황새 전문 사육사 4명이 상주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사육 및 전국 아생 방사 황새를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는 문화재청, 한국 교원 대학교 황새 생태 연구원의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 19일 안영호 응봉면 명예면장은 대전 중구 출신으로 지난 1월 제6대 응봉면 명예 면장으로 위촉 됐으며, 죽영신에 프랜시스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고 2022년 예산군 기업인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안명예 면장은 응봉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민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성금 기탁 등 평소 지역 복지 발전과 공동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안영호 명예 면장은 “응봉면민과 예산군 발전을 위해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향 사랑 기부제는 예산군과 같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비록 고향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예산군에 기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 기자

하고 1년 내내 사는 헛새 황새를 정착시키는 사업으로 안정기에 접어 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번식 쌍은 14쌍으로 나타났고 해마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새 서식지는 예산군을 중심으로 산재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중국 양쯔강 및 흥룽강 유역,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 타이완 등으로 까지 확산되면서 1900년대 초 천연기념물 황새가 살았던 동북아시아 영역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예산군은 최종 목표로 국내에 500~1000마리 까지 서식할 수 있도록 방사 연구를 추진 중이며, 유전적 다양성 관리와 서식지 복원에 중점을 두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예산군은 황새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에 청주, 서산, 김해 지역에 황새 1쌍씩을 이송했으며, 황새 사육 기술 전수 및 자문, 현장 점검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23년 7월 청주시에서 첫 자체 방사를 시행했다.

또한 예산군은 2013년부터 일본 황새 중 현재까지 153마리(57%)가 생존하고 있다.

국내 황새 복원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번식

있으며, 2023년 9월에는 최재구 예산군수와 쿠니오 카누키 도요오카 시장이 업무 협약을 하면서 한일 간 황새 복원 협력을 더 강화했다.

예산군은 지난 2010년부터 광시면을 중심으로 황새 서식지 보전을 목표로 친환경 업을 확대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황새 생태 업무 연합회, 황새 논설이 등 등민 단체와 함께 우렁이 농법을 활용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농법을 실행하고 있다.

이로써 친환경 농법은 2017년 약 140ha로 정점을 찍고 2023년 약 100ha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은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황새의 먹이원인 어류와 양서류가 풍부한 논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까지 논을 임대해 1년 내내 물을 담아두는 무논 습지 25㏊를 조성했으며, 논과 배수로를 연결하는 논어도(불고기길) 6곳, 콘크리트 수로 내 개구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개구리 사다리 300곳을 설치하고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예산군과 황새 권역 센터는 지난해 9월 제4회 예산 황새 축제를 개최해 1만 6000여명이 방문했으며, 향후 대한민국 대표 생태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오는 2024년 9월 제5회 예산 황새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황새 마을에는 쌍지팡이, 황새 사랑, 황새 마을, 황새 친환경, 공주 대학교 황사모 등 농민 및 민간단체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황새 보호 활동, 친환경 농산물 기공 체험, 생태 체험,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윤권식 황새 권역 센터 위원장은 “황새가 살아야 사람이 산다는 각오로 공원 주변 5개 마을 주민들이 협력해 황새를 살리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예산 황새가 헛새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지역균형발전사업 ‘황새 고향 친환경 생태 단지 조성 사업(총사업비 193억원)’이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며 “황새 서식지 습지 조성과 생태 탐방로 조성 등 황새마을 친환경 서식지 생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 기자

24일 정월대보름 전국 연날리기 대회

원활한 진행 · 시민 안전 확보 최우선

이용다리 주변 시설물 · 전기 · 교통 안전성 확인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2월 정월대보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전국연날리기 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이용다리와 남측광장 일원에 서자전거 통행을 제한한다.

이번 전국 연날리기 대회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혼형색의 연과 윷놀이, 제기자리, 쥐불을 이 등 전통놀이, 대보름 먹거리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연날리기 대회는 가족이 2인 1조(1인 지원 가능)로 참여 가능한 연 높이 날리기 부문과 다채로운 창작 연을 선보이는 창작연 날리기 부문으로 진행된다.

이용다리와 남측광장 일원에는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연

우리/동/네



천안시, 천안실버대학 입학식 시작으로

노인대학 5개소 연이어 입학식

천안시는 20일 천안실버대학 입학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일까지 노인대학 5개소의 입학식을 연이어 개최한다.

천안실버대학은 이날 대강당에서 입학생 어르신들과 내·외빈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입학식'을 개최했다. (사)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부설 아우내노인대학(3월 4일), 성환노인대학(3월 5일), 천안노인대학(3월 7일)도 각각 입학식을 개최하며 느티나무건강센터도 별도 입학식과 함께 강의를 시작한다.

각 노인대학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건강·취미·교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 3~5일 운영한다.

시는 노인대학이 어르신들에게 평생 교육의 배움터와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노인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들이 학사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노인대학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실버대학, (사)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부설 천안·아우내·성환노인대학, 느티나무건강센터 총 5개 노인대학이 운영 중이며 연간 500여 명이 참여한다.

천안=김정환기자



원성1동 노인회,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해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펼쳐

천안시 원성1동 노인회(회장 윤천수)는 새봄을 맞이해 지난 19일 마을 노인회장 등 10여 명이 함께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노인회는 3월 신학기가 되기 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골목 곳곳을 청소하고 해빙기에 위험한 환경 정비 및 순찰도 함께 실시했다.

윤천수 회장은 "분기별로 마을 노인회장님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며, 마을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해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천안시, 구직단념 청년에 최대 350만원 지원

천안시는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의 도전정신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천안청년센터 이름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중·장기 3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단기과정(5주) 수료 시 50만 원, 중기과정(15주) 수료 시 최대 220만 원, 장기과정(25주) 수료 시 최대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있는 18~39세의 청년이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천안청년센터 이름 누리집(www.d2030youth.k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오는 22일까지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재)천안청소년재단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 오는 22일까지 '천안청소년오케스트라'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천안청소년오케스트라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증진과 건강한 여기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등 파트별 수업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 등을 추진한다. 청소년 단원은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천안 내 학교에 재학 중인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파트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을 모집한다.

지원 방법은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누리집(<http://caoyouth.or.kr>)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품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단원 오디션은 24일 기본 소양면접과 지원 약기 연주로 진행 예정이다.

“어린이날 행사는 우리가 기획해요”

천안시 어린이기획단,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기획단 토론회 열어

천안시는 20일 '어린이기획단' 1차 토론회를 열고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기획에 나섰다.

시는 2021년부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린이 기획단'을 운영, 아동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공개모집을 통해 어린이기획단에 참여할 초등학생 50명을 선발했으며, 각각 25명씩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25명의 어린이가 위촉장을 받았으며 제102회 어린이날 허보·포스터 등을 직접 제작했다. 또 어린이날 놀거리와 현



장에서 주제별 팝업 이벤트 구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퍼실리레이터 김원경 강사와 대

학생 자원봉사자 6명이 협업해 어린이기획단이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도왔다.

2차 '어린이기획단' 토론회는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제 102회 어린이날을 더욱 풍성하고 특별하게 만들고자 하는 어린이기획단의 정의성과 열정에 감사하다"며, "어린이

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어린이기획단이 제시한 의견 '어린이날 행사 사회자 되기', '장기대회', '과학실험 공간', '야시장' 등이 어린이날 행사에 반영됐다.

천안=이정복기자

정

지방정부회의



박상돈 천안시장= 21일 오전 10시 총 남도청에서 열리는 제5회 충청남도 지방 정부회의에 참석.



독립기념관, 교육프로그램

'토요나들이' 운영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은 오는 3월부터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인 '토요나들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요나들이는 주말·공휴일·계기일에 방문하는 어린이·가족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담사·전시관 자율탐방·체험 워크숍 교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3월 1일, 기족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담사교육으로 문을 연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3·1 운동, 천안에 다다르다'라는 주제로 유관순 생가, 아우내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을 거쳐 독립기념관 전시관을 탐방하며 3·1 운동을 깊이 체험한다.

4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 전시관 자율탐방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자에게 전시물을 보다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활동 카드가 제공되며, 독립운동과 태극기, 의복, 한글 등 계기와 초등 역사과정에 맞춘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넷째 주 토요일마다 체험형 워크숍도 운영된다. 나만의 독립운동 태극기 만들기, 독립운동 세계지도 완성하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방문하는 어린이·가족 관람객이 매월 새로운 주제와 체험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의미있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독립기념관 누리집(<http://815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문진석 의원 '尹 정권 규탄' 4대 혁신 공동선언

윤석열 정권 규탄 위해 실현해야 할 4대 혁신 과제 발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20일 이번 총선 춤마를 선언한 정치 신인들과 '윤석열 정권 규탄'을 위해 실현해야 할 4대 혁신 공동 과제를 발표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전략자산 정치진인들의 정치교체·검찰개혁·기득권타파·언론자유 4대 혁신 공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

에는 강민석 서울 도봉구을 예비후보와 서진웅 부천시을, 신성식 전남 순천광양곡성구구, 이연희 충북 청주시흥덕구 예비후보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선 정치교체와

검찰개혁, 기득권타파 및 언론자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4대 혁신 과제로 내세웠다.

문 의원과 예비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으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거꾸로 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4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아동학대 업무 활성화 위해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천안동남·서북경찰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참여



천안시는 20일 아동학대 업무 활성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해 '2024년 제1차 천안시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천안동남·서북경찰서,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방안과 아

동학대 신고접수 시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올해 다양한 분야의 협장 전문가와의 협업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아동 선제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9회에 걸쳐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조동대응 및 합동점검을 통해 경찰서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춰왔다.

또한 관계기관이 개입해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기족 기능 회복 서비스 등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아동 보호와 재학대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위기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아동 권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연계협의체는 천안동남·서북경찰서,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천안교육지원청,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천안동남·서북소방서,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천안시 지역사회보장위원회 '복지도시 천안' 시행결과 평가

지역사회보장 실무·대표협의체 위촉 및 회의

천안시는 20일 제10기 천안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시행한 제5기 중장기계획 결과를 평가했다.

이날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수정사항을 반영한 2023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과를 평가했으며 신임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 결론된 평가는 이달 말까지 충남도에 제출

될 예정이다.

또 이날 위촉된 신임 위원들은 2년간 지역사회보장보조장제회의 수립, 시행, 평가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맡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천안시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신임 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민·관협력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을 제공

하는 공공·민간의 기관, 시설, 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는 공공·민간의 기관, 시설, 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철원군 민통선 철도부지 "찾아가는 임대설명회"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본부장 최원일)는 경원선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 철도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2일 오후 2시 철원을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임대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철원군 내 경원선 국유재산(200필지, 31만3262㎡)을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철도부지 임대를 희망하거나 경작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수도권본부는 사용허가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실무자가 직접 찾아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안내와 경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원일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철도공단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지역주민은 벼 재배와 농업보조금 수령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재산운영처, 02-788-5114)

송병배기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3월부터 꿈나무 구강건강 체험 운영

미취학 어린이 대상… 올바른 구강 생활 습관 형성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성정건강 생활지원센터는 다음달부터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꿈나무 구강건강 체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꿈나무 구강건강 체험은 어린이에 맞는 3개의 구강 테마존 체험으

로 진행되며, 연 2회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성정건강 생활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단선착순 400명을 모집한다.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가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 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 네트워크, 실천교육시민모임, 좋은교사 운동 등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심의회를 앞두고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보다 강력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가 동참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회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치고 넘친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날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뿐 아니라 △교사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유가족 조력 시스템 구축 △교원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순직 인정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기준 순직 인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기족의 죽음이라

하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기록한 쳐서”라고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또한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협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21일 인사혁신처는 故 서이초 교사를 포함하여 최근 교원침해, 업무 과중 등으로 인터넷 회생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심의할 예정이며, 지난 17일에는 조속한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 교사일동’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정복 기자



당진교육지원청, 퇴직교원 송공파 수여식 개최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2월 29일 자로 관내 학교의 정년퇴임 교원 4명과 명예퇴임 교원 8명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며 송공파 수여식을 개최했다.



서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나서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전담조사관 역량강화 배움소통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배움소통자리는 신규 위촉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한 사안처리 체계 정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보안 및 청렴서약 ▲2023 운영분석과 환류 ▲2024 주요업무 인내 순서로 진행되었다.



금산교육지원청, 유·초·중·고 행정실장 회의 개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은 지난 19일 금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행정실장 및 도서관장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행정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신학기 사전 준비 내용과 부서별 업무 협조 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산스마트고, 'AI 붕어봇 개발' 충남미래교육 특별전 참가
아산스마트팩토리미아스마트고(교장 조동현)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충남교육청 아산시 과학교육원 개최한 '충남미래교육 특별전(제2회 지능정보기술 융합수업 특별전)'에서 AI 붕어봇을 개발하여 체험마당에 참가했다. 이번 특별전에는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하였고 디자털 역량강화 교육, 전시마당, 체험마당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다양 한 수업 사례 공유 및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부스를 운영했다.

예산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창학력 교육과정을 위한

학교자율특색 과정 배움자리 개최



예산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교육과정 내실화를 강조하고자, 지난 19일 예산 관내 초등 교무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학교 자율 특색 과정 배움 자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배움 자리는 교육 과정의 기본 방향과 함께 다양한 창학력 교육 과정, 그리고 학교 자율 특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교육 과정 담당 교사 및 학교 자율 특색 과정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 계

획과 새로운 지침 방향, 그리고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각 관내 초등학교는 창학력 교육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2022년에 개정된 교육 과정의 새로운 방향을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2024년 교육 과정은 더욱 내실있게 운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교육 지원청 김종하 교육장은 “앞으로 예산 교육 지원청이 학교별 창학력 교육 과정을 검토하고, 2022년 개정 교육 과정과 학교 자율 특색 과정을 반영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관내 모든 학생들이 AI 기반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예산=박재화 기자

세종시교육청, 관내 학원 등 지도·점검 추진

세종지역 학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실태 파악이 이뤄져

세종지역 학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실태 파악이 이뤄진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신학기를 맞아 이달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700개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설립 2년 차 이내 학원·교습소 2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과 사전 지도는 건전한 학원 문화 조성과 교습비의 과도한△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서지도서3급△그림책통합예술놀이 등 총 12개 강좌다.

이 중 ‘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놀이’와 ‘책이랑 놀아요’는 영△자녀와 함께하는 맘랑밀랑 그림책들이△책이랑 놀아요△예술융합 상상놀이터△세계문화유산 왕릉에서 보물 찾기, 성인 대상△햇OPKA와 캔바로 나도 디자이너△캘리그라피와 플러스펜 수채화, 어르신 대상△문인화△왕초보ABC, 자격증 강좌로△독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대상 조정 촉구

道,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충남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 2년 차를 맞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김태호 시사는 20일 도내 15개 시군·군수와 공동 서명한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김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현행법은 관할 구역 및 주민을 공유하는 광역과 기초의 특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체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역·기초지방정부가 제각기 딥플랫폼·발굴·홍보를 위한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소득세(90%, 국세)와 지방소득세(10%, 시·군세 및 특·광역시세)로 기부자가 도내 기부하면 시군은 기부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세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짚으면서 "또 지방정부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로 지방정부의 주요 구성원인 법인의 지역 기여 등 사회공헌에 대한 요구 및 인식이 날로 확산하고 있음도 감안할 필요

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금과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은 모금 주체와 사용 용도 등이 업연히 다른데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제한돼 있어 지난해 10만 원 기부 건수가 총 기부 건수의 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모금 주체를 조정해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기부 대상을 '주된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 한정해 유착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실효성을 높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모금 주체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道)를 제외한 광역시 및 시군으로 조정할 것 ▲개인 외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에 포함할 것 ▲연간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할 것 등 3가지다.

앞으로 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홍보, 딥플랫폼 선정 등 시군의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며, 도와 시군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할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자동차부품 공장 신설 177억 투자협약

서산시-(주)청명, 신규일자리 32명 · 매년 부가가치 53억 창출 효과

충남 서산시가 지난 1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주청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흥순광 부시장, 김태호 충남지사, 김대열 주청명 대표이사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은 자동차 부품 기주요 부품 생산의 강소기업인 주청명의 서산테크노밸리 내 공장 신설을 주요 골자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주청명은 2026년 11월까지 2년 8개월에 걸쳐 서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177억 원을 투자해 1만 3561㎡의 부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4331㎡ 규모의 자동차 부품용 소재 생산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벽화 그리기', '우리들의 숲 조성', '목소리 재능 기부',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봉사' 등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송병배기자

김대열 주청명 대표는 "이번 서산테크노밸리 신설 투자를 통해 기업 내 제품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생산 자체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흥순광 서산시 부시장은 "청명의 투자 결정에 감사드리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산시는 유망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입주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설립된 주청명은 현재 서산테크노밸리에 본사를 두고 자동변속기 등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서산=김정현기자

한국타이어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진행

혈액 수급 안정화 기여 위해 임직원들 자발적 헌혈 참여 · 이웃사랑 실천



한국타이어 임직원들은 혈액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겨울철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고자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지역사회와 소외계

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벽화 그리기', '우리들의 숲 조성', '목소리 재능 기부', 따뜻한 겨울나

기 '김장봉사' 등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이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

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전한 기업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송병배기자

각각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 사

업장 및 R&D센터, 본사 테크노플렉스

(Technoplex)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맞춤형 임대농업기계 배송지원 사업 지속 추진



은 상·하차 가능한 임대농업기계를 전문 위탁 배송업체와 연계해 편도 5만 원 기준 60%인 3만 원을 시에서 지원받아 아산시 전 지역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됨다.

본 사업은 2023년에 전년 대비 수요가 35% 상승하였으며, 농촌 지역 고령화와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인해 올해 농번기에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3년도 '배송지원 사업' 담당자인 김해인 주무관은 '농업 교통약자의 든든한 밤이 되어주다'의 사례로 '2023년 아산시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아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2월 현재 농업용 굴착기 등 89종 566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내 9개 농협에 75종 362대의 농업기계를 위탁경영하고 있어,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농촌 인력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김정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관내농협 위탁운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아산시가 기계화·영농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기계 임대 및 배송지원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537-389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링주기자

송병배기자

aT 대전세종충남본부

'이번 주는 얼마유?' (2월 넷째 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aT, 본부장 안병희)는 대전지역 농수산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하고 전통(여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동네 장바구니 물가정보 '이번 주는 얼마유?' (2월 넷째 주)를 발행했다.

aT 관계자에 따르면 "배는 설 명절 이후 소비 수요가 감소하고 15kg 상자 단위 반입이 재개되어 상품 10개 기준 지난주 대비 14% 내린 4만원에 거래됐으나, 향후, 2023년 산 배 저장량 감소 및 산지 재고 물량 부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고 공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이 강보합세"라 전망했다.

반면, "고등어는 우천 등 바다 기상 악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신선냉장 대 1 미리 기준 지난주 대비 13% 오른 5660원에 거래됐으며, 향후, 고등어 어획기의 접어들며 조업이 부진하고 시장 내 생물 반입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보합세"라 전망했다.

송병배기자

공주시 영농대비 농업기반

정비사업 조기 추진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농민들의 영농 편의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전영농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61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농지 보전과 농업생산에 이용될 양배수장, 저수지, 용배수로, 농로, 관정 등을 신설하거나 정비해 농민의 경작 활동 편의 및 안전영농을 도모,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배수장 및 저수지 정비 69억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6억원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15억원 ▲취입보 정비 8억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25억원 등이다.

또한, ▲한발대비용수개발 4억원 ▲농업기반 재해 예방 및 복구 21억원 ▲농업 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 103억원 등 2023년 집중호우 시 발생한 재해복구사업 등에 총 261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 주민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철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정상범기자

K-예술형 주화 디자인 능력 제고 위해 원광대와 후원 협약 체결

조폐공사, 다양한 주화 제작에 필요한 독창적 디자인 공동 개발



조폐공사는 지난해부터 원광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속·주얼리디자인 학과 학생이 참여한 4종의 기념메달 디자인을 협업하는 등 창의 성 높은 기념 메달 디자인 설계를 위해 협력 중이다.

조폐공사는 최근 K-예술형 주화 국내 도입 연구를 위해 세계 예술형 주화 특별기획전 및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2024 세계화폐박람회(World Money Fair, 2.2~4.4)에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참가해 예술형 주화의 세계적 동향 및 신기술도 직접 확인했다.

또한 대표적인 예술형 주화 발행국인 오스트리아 조폐국과 21년 예술형 주화를 도입한 스페인 조폐국도 방문했다. 현재는 학술 연구 용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완료할 계획이다.

성창훈 사장은 "예술형 주화 발행은 국가 상징물을 활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문화 및 수출사업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원광대와 협력을 통해 K-예술형 주화의 디자인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배기자

당진시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20일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신청 · 접수

당진시는 20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200여 가구이며, 기준 대상자들도 재신청해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3월 4일부터 8월 31일 까지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GS25, GS25프레시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 가능 품목은 국내산 채소·과일, 흰 우유, 신선제과, 유통·잡곡, 풀, 국내산 두부류, 단순 가공 체소, 삼양유리 등이다.

유이다.

매월 1일 지급액이 자동으로 충전되며,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으로 가구원 수별로 다르며, 당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해 사용할 수 있으나 매월 2천 원 미만에만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취약 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제1차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홍성군, 개인 최대 5000만원 · 법인 · 단체는 1억 원까지 2% 금리로 융자 지원

홍성군은 올해 제1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융자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지원금은 3억 원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목축·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축산·임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

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단,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동정

지방정부회의



박경구 아산시장
=21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대회의
실에서 열리는
'제5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오후 3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당정2
지구 실시계획 협의 의견 회의'에 참
석.

지방정부회의



오성환 당진시장
=21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대회의
실에서 '제5회 충
청남도 지방정부
회의'에 참석.

지방정부회의



가세로 태안군수
=21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대회의
실에서 열리는 '충
청남도 지방정부
회의'에 참석.

지방정부회의



김돈곤 청양군수
=21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대회의
실에서 열리는 제5회 지방
정부 회의에 참
석.

청양군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기공업체 품질 검사비 지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체계화된 가공
유통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 종합계획(푸
드플랜)에 남편 중인 군내 기공업체를 대
상으로 자가 품질 검사비를 지원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식품 제
조 기공업체이며, 먹거리 종합계획(푸
드플랜) 출하 제품 중 자가 품질 및 영양성
분 검사, 참고용 검사 등 제품 관련 각종
시험 분석 비용을업체당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이 지원은 2023년 먹거리 종합계획(푸
드플랜) 출하 실적이 있는 제품만 해당하
며, 신청 업체는 신청서와 견적서, 사업
지등록증 사본을 갖춰 오는 29일까지 군
청 농축공동체과 농촌산업팀(940-2282)
에 접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은 지원 대
상 선정부터 보조금 운용까지 지방보조
금 관리시스템(보맵e)을 활용해야 하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
리시스템(보맵e)에 가입하고 등록해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지원계획과
신청 서식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촌산
업팀(940-2282)에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약해 드리며,
처음으로 가격으로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전빌딩 T

www.daejeontoday.com

'산업현장 안전' 관계기관과 맞손

태안군-태안발전본부-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등 5개 기관 참여해 맞춤형 인력 양성



태안군이 관계기관과 손잡고 산
업현장 안전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을 위한 '현장안전감시자' 양성에
나선다.

군은 지난 19일 태안문화원에서
가세로 군수와 한국서부발전 태안
발전본부 및 보령여성인력개발센
터 관계자, 교육생 등 4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태안군 현장안전감
시자 양성과정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4일간의 교육과정에 돌입했
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 태안
군·태안발전본부·고용노동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충남일자
리경제진흥원이 공동 참여한 '태
안형 산업안전 전문인력 양성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들 5개 기
관은 맞춤형 취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현장에 투입되
는 전문인력 양성에 뜻을 모으고

그동안 교육 준비에 나서왔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
행 이후 건설현장 내 산업안전 전
문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에서, 지역 주민들을 우수 현장 안
전감시자로 양성하는 이번 교육이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
다.

교육생은 총 30명으로 28시간에
걸쳐 태안문화원에서 ▲건설기초
안전 보건교육 ▲신호수 실무 신규
양성교육 ▲유도원 실무교육 청렴
교육 ▲화재감시원 실무교육 ▲밀

폐감시원 실무교육 등 5개 과목의
교육을 수강한다. 교육은 전문성을
갖춘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맡
는다.

수료생들에게는 현장안전감시
자 교육 이수증이 발급되며, 군은
태안발전본부를 통해 수료생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8
월에도 한 차례 더 현장안전감시자
양성 과정 교육을 마련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 맞춤형 일
자리 창출을 위해 태안군 등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이번 교육을 실
시하게 됐다"며 "교육생들이 수료
후 안전한 태안 건설에 이바지해주
기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노
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향토 무형문화유산 한진 풍어당제 열려

당진시, 민선과 안녕 기원·전통문화 계승 노력

당진시 향토 무형문화유산으로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
한 '한진 풍어당제'가 오는 22일
당진 한진포구 일원에서 열린다.

'한진 풍어당제'는 음력 정월 첫
진일(辰日)에 시작해 다음 날까지
이틀간 이어지며, 올해 풍어당제는
첫날인 22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당기 울리기, 풍물놀이, 산신제 등
의 행사를 하며, 다음날(23일)에는
뱃고사를 지낸다.

서해안에 있는 당진은 본래 포구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지역으로 과
거 여러 마을에서 풍어제를 진행했

지만, 현재에는 송악의 안성과 한
진만이 풍어제의 맥을 이어가고 있
다.

특히 한진은 과거 '대진(大津)'
이라고 불리며 이산만 일대 최대
규모의 포구로 어업의 중심지였으
며, 현재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
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풍어제는 각종
행사와 볼거리가 풍성해 번창했던
과거 포구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향해의 안전
과 만선(滿船)을 기원하는 풍어당
제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



로, 한진이 관광 중심의 포구로 재
도약할 수 있도록 보존과 전승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드론 실무 전문가 양성교육' 첨단 인재 양성 '박차'



아산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첨
단인 재 양성을 위한 대시민 드론

교육 지원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아산시 거
주 미취업자와 능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스마트드론 헬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76명의 자격증 취득자
를 배출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드론 운영 및 취·창업과
연관되는 실무교육인 '스마트드론
실무 전문가 양성 교육'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1기 과정을 시행한
'스마트드론 실무 전문가 양성 교
육'은 수료생들로부터 전원 만점
평가를 받을 만큼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 17일 이틀간 진행한 2기 교육
에는 총 19명이 참여해 ▲정비 ▲
방제 ▲진로탐색 ▲드론을 활용한

촬영 및 편집 등의 교육을 수료해
스마트농업 및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습득했다.

한편 시는 드론 산업의 성장에
따라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내부적으로 드론 업무
전담 조직을 구성해 드론 관련 다
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기시적 성과
를 거두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 '스마트드론
헬퍼 지원 사업'을 통해 대시민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드론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한덕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은 자격 취득자들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며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전
된 내용의 실무교육을 주가 진행하
여 미래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상반기 평생교육 특
성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
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수강생 모집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프
로그램과 강사를 공개모집, 모두
52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수했다.

군은 이 중 우수프로그램 26개
(대면 25개, 비대면 1개)를 선정했
다.

수강생 모집 프로그램은 인문·교
양 분야의 ▲스페인어·문화 ▲학
기들의 삶과 명화로 떠나는 인문
예술여행 ▲논어 이야기 등이고,
문화예술 분야의 ▲비즈공예 ▲소

묘와 수채화 ▲한국화 & 캘리그라
피 등이다.

또 직업 능력 향상 분야에서는
▲화병(스피치) 지도사 ▲정리수납
전문가 ▲노인 인지 놀이 지도사 등
이다.

군은 26개 프로그램을 3월 18일
개강해 7월 10일까지 10~15회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강 신청은 청양군 평생학습센
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평생 교육팀
(041-940-2859)에 문의하면 된
다.

군 관계자는 "참신하고 효율성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군민
이 원하고 군민을 위한 평생 학습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산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규모 민간 건설 현장 방문
아산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대규모 민간 건설 현장에 방
문해 지역업체를 홍보하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포스코이엔씨가 시공 중인 관내 대규모 민간 건설사업 현
장사무소(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원, 탕정 포스코 인피니티시티)를 방문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동/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 협약

당진시, 지자체 첫 시례로 중증장애인 안정적 일자리 제공

당진시는 지난 19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민들레일터 및 성
모신나는일터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고용 협약을 체결
했다.

협약에 따라 당진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이 생산
하는 물품을 구입해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고용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란 장애인 고용 의무 기관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물을 납품받는 경우 그 생산
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
주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그간 민간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
서만 허용해 왔으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까지 확대 시행된 장애인 간접 고용 제도이다.

이번 협약 대상 사업장인 민들레일터는 2015년 설립해 관축물
인쇄 및 견과류 포장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당진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이번 협약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당진시는 필요한 관축물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하
게 된다.

아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인 성모신나는일터에서는 쓰레기 종
량제봉투를 구입해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오성환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
가 우리 사회 전반에 공유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시도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당진시의 장애인 연계고용 협약은 2024년 개정·시
행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기준'을 적용한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장애인체육회 정기이사회

청양군 장애인체육회 회장 김돈곤은 지난 19일, 이사 22명과 감
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3년도 예산 결산보고, 2024년도 예산 승인,
장애인체육회 운영 규정 및 규약 개정 등 7개 안건을 심의했다.

또 올해 장애인체육회 예산으로 6억 8,500만 원을 확정했으며,
임원과 사무국장 임기와 관련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김돈곤 체육회장은 "장애인체육 활

우리/동/네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시작

부여군, 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어민수당을 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부여군이 중부권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하면서 충남 전체로 확대되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구성원이다.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8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 원씩 굿드래피로 지원된다.

다만, 2022년도 기준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 미만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서천군 월동작물 피해 우려

잦은 강우·이상고온으로 맥류·양파 등 중점관리 당부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순종)가 올겨울 짧은 강우 및 이상고온으로 월동작물의 생육이 좋지 않은 데 이어 지난 18일부터 최고 70mm의 비가 내려 재생기 이후 농작물 습해 및 병충해 발생이 우려돼 특별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평균기온은 2.2°C로 전년 대비 1.7°C, 평년 대비 2.0°C가 높았으며, 누적 강수량은 1365mm로 평년 대비 365%가 많고, 반면에 일조시간은 1446시간으로 전·평년 대비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짧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판내 1342㏊의 월동작물을 생육상태는 습해 및 웃자립 등 예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논에 피종된 맥류(보리, 밀)의 경우 겨울철 배수가 불량한 포장에서는 뿌리가 충분히 뻗지 못해 양분 흡수 기능이 떨어져 토양 과습으로 잎이 노랗게 변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한 물빼기와 함께 요소비료 2%액(물 20ℓ에 요소 400g 회색)을 10cm당 100ℓ 씩 2~3회 일에 뿌려주면 초기 습해를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마늘과 양파의 경우 월동기 짧은 강우와 이상고온으로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양파의 노란병 및 마늘잎집썩음병, 흑색썩음균핵병, 고자리파리 등 병해증 발생이 급증해 재배 농기들의 피해가 없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박명수 군 농업축산과장은 “재생기 세심한 포장 관리가 월동작물의 수량을 좌우하므로 수시로 배수로 정비와 병해증 방제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청년농업인 4-H회 신규회원 모집

계룡시, 만18세 이상 39세 이하면 누구나 가능

계룡시(시장 이웅우)는 오는 3월 15일까지 지역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4-H회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관련 사업종사자이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농업인경영체 또는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며, 모집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현재 시장,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게재 및 현수막 게첨, 6개 농업인단체회장, 13개 영농마을이장을 통하여 신규회원 가입을 통보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http://www.gyeongong.go.kr/hongang>)을 참고하면 된다.

계룡시 농업을 이끌고 있는 농업인 단체(청년농업인 4-H회)에 가입하면 네트워크를 통한 농업 품목별 교육 및 학습활동, 우수농장 현장교육, 영농실천과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 가능하며,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전문 농업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회원 간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농업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 4-H회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투자 쏟아진다… 이번엔 600억

민선 8기 신속허가업무 혁신으로 논산시 투자 유치 급성장

허가업무 혁신과 원활한 인재수급으로 투자기업 본사까지 이전 추진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농어민수당을 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부여군이 중부권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하면서 충남 전체로 확대되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구성원이다.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8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 원씩 굿드래피로 지원된다.

다만, 2022년도 기준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 미만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6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냈다. 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풍산에프 앤스와 (주)해원바이오테크 두 개 기업이 논산시에 각각 500억 원과 1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논산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연예은 대규모 투자는 민선 8기 들어 투자유치과, 신속허가과를 신설하는 등 논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백성현 시장의 노력이 기업들에 알려지기 시작한 효과로 보인다.

이번 투자는 지난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확정됐다. (주)풍산에프앤스는 현재 논산시에 진면에 소재한 방위산업체로 신관, 센서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광석면 천동리 일원에 2만 평 규모의 제2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주)KDrD 기업 유치에 이어 ‘K-방산’의 한 축인 풍산의 이번 투자로 대한민국 대표 국방산업도시로 열린 협약식을 통해 확정됐다.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주)풍산에프앤스 대표는 “제품에 대한 수주 잔고액만 현재 196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

제5회 지방정부회의



최원철 공주시장= 21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5회 지방정부회의에 참석.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김동일 보령시장= 21일 오전 10시 충남도청에서 제5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2시 보령미드테마파크에서 대천관광협회 제61차 정기총회에 참석.

제5회 지방정부회의



이완섭 서산시장= 21일 오전 10시 충남도청에서 열리는 제5회 지방정부회의에 참석, 오후 1시 30분 해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해미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오후 3시 시청 종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소행정 현업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에 참석, 오후 4시 30분 시장실에서 열리는 도민체전 공개행사 연출대행용역 보고회에 참석.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박병인 금산군수= 21일 오전 10시 충남도청에서 열리는 제5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마을학교 개강



충남 서산시는 지난 19일 '2024년 성인문해교육 마을학교' 개강식을 인지면 애정2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하고 연중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인문해교육 마을학교는 글을 읽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성인에게 기초 한글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문화, 디지털 문화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올해 대신을 기은 1리와 대죽 1리, 인지면 애정 2리, 부석면 대두 1리, 성연면 오사 1리, 읍암면 유계 1리, 수어 통역센터 등 7개 소에 마을학교를 개강해 총 25개소 287명을 대상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 한글 교육과 성인문해 시화전 개최, 평생학습 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 어르신들의 문화력 향상 밖에도 배움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존감 향상 기회도 제공한다.

신규 성인문해교육 마을학교 개강을 희망하는 마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041-660-2378)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섭 서산시장은 "배움에 대한 강한 열정과 곤기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배움을 통해 삶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서산시, (가칭)초록광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중앙호수공원 도심 속 역량 증대 박차



물을 이용한 족욕시설 등 시민 여가 공간으로 4계절 푸른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그 아래에는 500여 수용 규모의 복층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이원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관련 관부원과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초록광장 건립의 용역 최종 보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에 대한 점검과 ▲중앙호수공원 인근 불법 주·정차 현황 ▲(가칭)초록광장 추진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등이 다루어졌다.

시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수립

한 의견과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민의 녹지환경 체감도 향상과 휴식공간 제공, 예천지구 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초록광장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원섭 서산시장은 "(가칭)초록광장은 중앙호수공원과 연계한 녹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18만 시민의 새로운 복합 휴식·여가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만연한 도심지 불법주차 등 고질적 도심 주차난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 탄소중립 녹색 성장을 위한 도심 속 히파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우/리/동/네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보령시 '우수기관' 선정

보령시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단계 높은 '나' 등급을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총 5등급(가~마)으로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자체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며,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등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지표를 두고 정량·정성 평가를 한다.

보령시의 경우 전국 75개 시 중 상위 30%에 들었으며,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는 '매우 우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종민원처리 등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동일 시장은 "2024년에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 2023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시민공감 보령형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태선 기자

공주시 도서관, 제3회 독서마라톤 대회 운영

건강한 독서 습관 생활화 도모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책 읽는 지역문화 조성을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240일간 '제3회 공주시 도서관 독서마라톤 대회'를 추진한다.

독서마라톤은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해 책 1쪽을 2m로 환산해 자신이 도전한 코스를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독서감상평 작성, 인증을 통해 규칙적이고 건강한 독서습관을 기르는 범시민 독서 캠페인이다.

초등학생 이상의 공주시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주시 도서관 누리집(www.gyeongji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코스는 단거리 제민천 코스부터 5km 무령왕릉, 10km 공산성, 하프 마라톤, 폴코스 계룡산 코스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마라톤 원주자 전원에게 완주증과 메달을 수여하고, 2025년 도서 대출권수를 10권에서 20권으로 확대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원주자 중 우수독서기록일자 작성자를 선정해 공주시장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조선기 평생교육장은 "매년 참가자 수와 완주자 수가 증가하는 독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목표를 정하고 꾸준한 독서로 책읽기의 즐거움과 독서습관이 생활화되는 완주의 결실을 맺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공주시 기관의 도서관(041-840-89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군,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체제 돌입

근원적 예방대책 수립 및 선진적 진화체계 구축

금산군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통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에 맞는 근원적 예방대책 수립 및 선진적 진화체계를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추진 전략은 △영농부산물 처리 체계 구축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인력 운영 및 진화장비 점검 △마을별 산불방지 및 맞춤 활동 △위험 시기별 산불 대비체계 마련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 6개다.

산불방지대책본부의 경우 군청과 10개 읍·면·면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상황근무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

체를 유지해 산불 발생 상황 24시간 비상 대처를 기동한다.

또한 산불전문에 방진화대원 46명, 산불감시원 70명과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신속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초동 진화 대처를 확고히 하고 산불진화인력이 사용할 진화장비 수시 점검으로 산불 발생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관리를 위한 마을별 맞춤 활동으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소각산불 적발 및 신고, 과태료 부과 등이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녹색마을 캠페인도 추진한다.

위험 시기별 대비체계는 산불이 발생시기 집중 감시를 위해 마련됐으며 3월과 4월을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성묘객 및 등산객 등 산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관내 산불취약지 중심 공무원을 현장 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

이외에도 통행자가 많은 구간 산불조심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산불에 방 흥보활동도 추진 중이다.

박병인 금산군수는 "이번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관내 산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부분의 산불이 시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주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공주시, 찾아가는 농한기 구강건강관리 추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용 어르신 대상 구강건강관리 및 불소도포 진행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이달 말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한기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노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시설 접근성이 어려운 읍면 지역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보건진료소 등 36개소를 순회하며 630명을 대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구강질환 예방 및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구강관리 위생용품 사용 방법, 임플란트 및 틀니(의치) 관

리 방법 등을 교육·홍보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감염병 예방 등 보건교육을 연계, 추진 중이다.

또한, 시민이 원화 및 치근우식(종충) 예방을 위해 치과 및 공중보건의사가 불소도포와 함께 구강건강상담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의 구강질환 예방관리에 힘쓰고 있다.

김기남 공주시보건소장은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올바른 구강 정보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군-공공연대노동조합 단체협약 첫 상견례



다. 또한 임성진 금산군 공인 자문 노무사도 자리해 양측의 원만한 대화를 도왔다.

교섭대표 인사 후 양측은 올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실무교섭 일정을 간단히 논의했다.

박병인 금산군수는 "공공현장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노사 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군과 근로자 모두가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협력해 능동적인 조직사회를 이뤄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본부장은 "노사협의가 시작되는 장을 마련해준 사족 관계자에 감사드린다"며 "노사협약은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기장 큰 힘이 되는 만큼 노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원만한 협상을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복 기자

만세보령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보령시 브랜드 가치향상 기여

보령시는 시 공동브랜드인 '만세보령'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생산자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만세보령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2억 여원을 들여 농특산물의 표준규격 출하를 위한 골판지 상자, 지대, PB대 등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세보령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쌀, 포도, 양송이, 시과, 배, 농기공품 등 50개 품목과 70개 상표승인 사업체이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소비자에게는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감을 주고, 생산자에게는 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판로 확대와 만세보령 공동브랜드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생신자단계 또는 농기공업체 대표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930-7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만세보령'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로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국립한밭대, LINC 3.0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사업실적 점검하고 개선점 도출과 자문 통해 차년도 사업 계획 반영

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 LINC 3.0 사업단은 19일 교내 신학연합동관에서 2023학년도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INC 3.0 사업 수행 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 도출 및 자문을 통해 차년도 사업 계획 반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내부위원 10명과 외부위원(△한국어어로주 김왕환 대표이사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구자현 원장 △창업진흥원 이장훈 본부장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 강형석 대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성현 책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권기정 책임연구원) 6명, LINC 3.0 사업단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2023학년도 LINC 3.0 사업 추진 경과 및 주요 실적, 핵심성과지표 달성을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대학과 기업 협력을 통한 교육과 지역 정주 문제 해결, 대

학-학생-기업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 환경 개선 방안 마련, LINC 3.0 핵심성과지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평가는 2차년도 추진실적을 자체 평

가하고, LINC 3.0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평가하며 추후 이 결과는 3차년도 실적 보고서 자체평가 수행 실적 및 사업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립한밭대 우승한 LINC 3.0 사업단은 “국립한밭대학교와 LINC 3.0 사업단의 지역혁신을 위한 노력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지·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한밭대학교 LINC 3.0 자체평가 위원회는 사업의 주요한 의사결정과 성과확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사업 추진 관련 내·외부 위원들의 자체 평가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양성평등 도시 대전’ 만든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와 양성평등센터

대전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인식)이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대전·세종성별영향평가센터(이하 성별영향평가센터)와 대전·세종양성평등센터(이하 양성평등센터)를 2024년부터 운영 중이다.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정책, 사업 등에 성별 관점을 반영해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성주류화 제도를 운영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및 컨설턴트단 운영 ▲성평등 정책 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양성평등센터는 ▲공공기관 임직원 및 유치원 아동 대상 양성평등 교육 ▲문화사업 및 캠페인 ▲지역 청년 모니터링 및 청년 소통 네트워크 운영 ▲지역 정책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질 높은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강사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개 기관의 센터장은 박란이 대전시사회서비스원 복지협력부장이 맡는다. 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 부장은 여성기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컨설픽트단’으로도 활동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성 권리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해 쌓은 다양한 실전 경험을 기반으로 성주류화 정책과 양성평등 교육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남서울대, 4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선정



남서울대학교(총장 윤승용)는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에서 남서울대학교는 불법 체류율, 전략 및 선발,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관리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남서울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특히 남서울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지원을 위해 학사, 체류 관리 전담 서비스지원센터, 유학생 및 출 취업 교육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과 유학생 이탈 예방을 위한 상담도 함께 운영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상빈 대외협력처장은 “외국인 유학생 특성화 강점 대학으로 글로벌한 한국어 문화학과와 같은 외국인 전담 학과 개설, K-뷰티 특성화 학과 운영 등 글로벌캠퍼스 구축을 위해 힘쓰며 이 분야의 중부권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졌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에 선정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의 정부 초청 장학생(GKS) 선정 시 기점 부여, 각종 교육정책과 교육사업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아울러 이번 인증 유지 평가를 통하여 인증 기간은 2026년 2월까지 유지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는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이정복기자



충남대, 대전 TIPSEtaun 주차장 건립

전국 최초로 대학캠퍼스 내에 설립된 대전 TIPSEtaun의 부대 시설인 주차장이 충남대학 대덕캠퍼스에 건립된다.

그동안 대전 TIPSEtaun은 주차장을 갖추지 못해 임시 사용 승인 상태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주차 타워 건립으로 이용자 불편 해소는 물론, 정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대는 오는 5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 3월까지 총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해 ‘대전 TIPSEtaun 주차장’ 건립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충남대는 대전 TIPSEtaun 주차장 건립 국비 41억 7천만 원과 대학 자체 예산 23억 원, 대전시 지원 예산 12억 5,800만 원 등 총 77억 2,800만 원을 투입한다.

대전 TIPSEtaun 주차장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동편 주차장 부지에 건립되며, 4,980㎡ 규모에 자주식 주차타워(지상 4층) 형태로 169개의 주차면이 조성된다.



우송정보대 간호학과, 제64회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우송정보대학 간호학과는 지난 1월에 시행된 2024년 제64회 간호사 국가고시(2024.01.19. 시행)에서 간호학과 응시자 73명 전원이 100% 합격했다고 밝혔다.

우송정보대학 간호학과는 경쟁력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실무중심의 교과과정 운영 및 Simulation Center 등 최신의 우수한 실습실과 다양한 임상 실습 현장의 확보로 실무경쟁력을 갖춘 임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송정보대학 엄준철 부총장은 “작년 12월 간호교육인증획득에 이은 간호사 국가고시 100%라는 놀라운 성과를 연이어 이룩한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간호학과 교수진의 혼신적인 노고와 학생들의 노력의 결과이며 대학차원에서 전문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전문직 간호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한남대, 종양열림실 대대적 변신

한남대 중앙도서관(관장 강구철)은 19일 오후 3시 56주년 기념관 3층 종양열림실에서 자유학습공간 ‘HUME L2(Hannam University Multi Space Library2)’ 오픈식을 개최하고 겨울방학 동안 리모델링한 공간을 개방했다.



배재대 학생들 ‘WE-Meet 프로젝트’ 두각…대한상의 회장상

배재대 IT경영정보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테트라포트팀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23 We-Meet Awards’에서 실감미디어 분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했다.



온양로타리클럽, 온양1동에 책상·의자 17세트 전달

온양로타리클럽(회장 최명진)은 지난 19일, 이산1동에 저소득층 이동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책상·의자 17세트를 전달했다.



국철도공단,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합동사무실

국철도공단 임종일 부이사장(앞줄 가운데 왼쪽)이 지난 19일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합동사무실(대전 중구 소재) 개소식에서 관계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국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시스템 구축 사업자 간 합동 사무실을 운영함에 따라 관계 운영자(한국철도공사) 입장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내실 있는 제2철도교통관제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 ‘2024년 이순신 관광 굿즈 개발 공모전’ 개최

충효애 치유관광더하기 사업 이순신관광브랜딩의 일환

아산시와 (재)아산문화재단은 ‘2024년 이순신 관광 굿즈 개발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충효애 치유관광더하기 사업이 순신 관광 도시로 브랜딩하고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진행된다. 공모 굿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하며, 이순신 상징을 담은 제품이어야 한다. 응모는 국내 사업자 또는 법인을 갖고 있는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다.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1차 심사 통과자는 4월 4일까지 견본품을 제출처에 방



면 또는 택배로 제출한다. 수상작은 4월 16일 (재)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할 예정이다. 제작 가능한 작품 수는 한업체 당 5점으로 제한된다.

공모전 상금은 대상(1작품) 1,500만 원, 금상(2작품) 1,000만 원, 은상(5작품) 400만 원이며, 시상금은 수상 작품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아산시 관광진흥과 총무애 TF팀(041-530-63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 된 굿즈는 아산의 이순신 관광 흥보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순신 상징을 담은 제품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공주탄천장승제’ 공개행사 개최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공주시 탄천면 송학2리에서 개최



공주시를 대표하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인 ‘공주탄천장승제’가 오는 24일 탄천면 송학2리에서 개최된다.

서승열 보유자(공주시의원)의 주관으로 열리는 ‘공주탄천장승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사전행사 ▲기념식 ▲기념행사 ▲장승 및 오랫동네 꺾기 ▲장승훈례와 장승세우기 ▲장승제 ▲횃불싸움 순으로 진행된다.

백제시대부터 전해진 고유의 민속신앙인 공주탄천장승제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탄천

면 송학리 소라실 마을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개최되는 장승제이다. 1984년 전국민족예술경연대회에 참여해 종합 우승 및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1989년에는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됐다.

서승열 보유자는 “공주탄천장승제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일과 훈이 함께 하는 문화행사”라며

“이번 공개행사 개최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동구 “세금 문제 마을세무사 제도로 해결하세요”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세무사

들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세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 불복 관련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지방세 불복 청구 등에 관해 전화·팩스·전자우편 상담과 더불어 방문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권역별 마을세무사는 ▲중앙동·신인

동·삼성동 유경철 세무사(☎486-1389) ▲효동·판암1동·판암2동 정성민 세무사(☎673-4304) ▲용운동·대동·용전동·성남동 김용관 세무사(☎472-2992) ▲지양동·기양1동·기양2동·홍도동 김기학 세무사(☎256-2821) ▲대평동·산내동 김현주 세무사(☎489-3300)이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충남대·시범대학·교육대학원·미국 시카고 한국교육원, 업무 협약 체결 남대학교 사범대학·교육대학원과 미국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국제교류네트워크 구축 및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홍성군 조양사무기, 씽씽이가바른회사 536호 기업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문은수)는 지난 16일, 조양사무기 대표 이홍실에 '씽씽이가바른회사 536호 기업'에 따른 명패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양사무기는 홍성군 홍성읍에 위치한 사무용 기계장비 및 컴퓨터 일대업체로, 지난 2022년부터 정기후원에 참여하다 올해 2월부터 약정 금액을 10만 원으로 증액해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서대덕구자원봉사센터, 2024년 정기 이사회·총회 개최 이날 참석자들은 △2023년도 사업 결과 및 예산 결산(안)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계획(안) △운영 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대덕구자원봉사센터는 대덕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17기 58명 졸업선서식 성료 지난 19일 교내 혜화문화관 블랙박스홀에서 17기 졸업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7기 졸업생은 재학 중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과 임관을 위한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기수호를 위해 장도를 시작하는 군사학과 17기 졸업생 모두에게 큰 박수와 환호로 축하와 함께 상장을 수여했다.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성해 이사장, 첫 행보로 GTX-A 수서~동탄 현장 점검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성해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19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GTX-A(수서~동탄)의 수서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다음달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개통 전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을 준비 중이다.



아산시, 프리닉스·한나테크 등 2社와 350억 원 규모 투자 협약 아산시가 프리닉스(주), 주한나테크 등 국내 기업 2개 사와 총 3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 MOU를 체결했다.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예술학부-대한가수협회 대전지회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위한 업무협약

우송정보대학(총장 이달영)은 2월 19일 지역 가수를 배출해 공연, 축제 등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대한가수협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정철)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계기로 우송정보대학과 대한가수협회 대전광역시지회는 우송정보대학 학생과 산학협력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입학 등의 협력 정 보지원, 우송예술회관을 활용한 공연 개최, 산학협력의 다양한 축제, 공연 등에 관한 협력, 협회 회원들이 글로벌실용예술학부, K-Pop전공(K-trot 과정) 지원사 학



생들에게 입학시 50%의 장학금 지급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영 총장은 "우송정보대학과 대한가수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시지회 회장은 "지역에서 예술 활동 성공 노하우, 입학지원 모집, 지역에서 예술 활동 등이 우송정보대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우송정보대학에서 이달영 총장, 김수경 입학처장, 글로벌실용예술학부 김혜지 학부장, 전영진, 박은진, 지선영 교수가 함께 했으며 대한가수협회 대전광역시지회에서는 정철 회장, 최현희 수석 부회장, 유서진 부회장, 조정현 부회장이 참석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의를 추진했다.

이정복기자

정철 대한가수협회 대전광역



"대한민국 미용산업 발전

견인에 감사"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이 20일 선사인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한국미용장협회 2024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미용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한국미용장협회에 감사와 성원의 마음을 전했다.

축사를 통해 이상래 의장은 "K-뷰티산업의 선두 주인 미용산업에서 우수한 전문 기술로 나날이 활약 중이신 미용 장인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대전시의회에서도 미용을 비롯한 뷰티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4-H 연합회 회장이·취임식 및 연시총회 개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보령시 4-H연합회 새로운 출발



보령시 4-H 연합회(민20세~만39세)는 지난 19일 연합회 회원 및 내빈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53대·제54대 회장의 이·취임식과 연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보령시 4-H연합회를 이끌어 온 박상철 회장이 이임하고 강희현 회장을 비롯한 신웅희 수석부회장, 최수태 부회장, 김승집 시무국장, 김민집 재무국장, 김요환, 이락주 감사가 인준서를 받아 취임했다.

박상철 이임회장은 "지난 2년간 4-H발전을 위해 함께해준 회원들

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보령시 4-H연합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승운 보령시 4-H본부회장, 박상모 시의회 회장, 김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했으며, 4-H연합회 선배 및 농업인단체장 등 디수의 내빈들이 참석하여 4-H연합회 발전을 위해 격려했다.

박상철 이임회장은 "지난 2년간 4-H발전을 위해 함께해준 회원들

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보령시 4-H연합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보령시 4-H연합회가 앞장서서 우리 지역 농업·농촌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우리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업인들이 모인 보령시 4-H연합회의 발전과 보령시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국 4-H연합회란 지녀노체(智德勞體)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 유능한 민주시의식을 길러주고, 농심협력과 자연·환경친화적 활동 및 기술을 연마하여 창의·융합적 미래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청년 사회단체이다.

보령=김태선 기자

박 시장 '전통 민속제의' 장려 계획 기록교계 우려

19일 시청 상황실서 주간 간부회의 열려



박경귀 아산시 장이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산신제 등 '민속제의' 장려 계획에 대한 기록교계의 우려에 답했다.

박경귀 시장은 "오늘의 산신제,

우물제, 장승제 등은 보존하고 지켜야 할 민간의 전통문화일 뿐, 종교계에서 우려하시는 미신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제22대 국회의

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산시 공직자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절실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특별히 선거 관련 부서는 꼼꼼하고 철저한 업무 관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민정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및 당위성 ▲국립경찰병원 예타 대응 관련 지원 방안 ▲아트밸리 아산 제6회 성공 이순신 축제 홍보 ▲어의정 축제 개발 방안 ▲주민수시 들음병 방역 추진 ▲원도심 환경 디자인 개발 사업 등도 함께 논의됐다.

리량주 기자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군지회, 새봄맞이 예당호 수중 정화 활동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군지회(지회장 신보선)는 지난 17일 예당저수지 일대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수중 정화 활동은 보트 1대 등 특수 장비를 동원해 특수임무유공자회 소속 잠수사들이 예당저수지로 입수해 일반인이 수거하기 어려운 수중 쓰레기와 제거해 깨끗하고 평화로운 예당저수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KT&G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소외계층에 온정의 손길

'사랑의 급식 나눔' 후원금 전달

KT&G 사장 백복인(가)이 어려운 이웃들의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급식 나눔' 후원금 약 1억 2천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KT&G는 지난 19일 '따스한 채움터'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임직원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

이정복기자

시의 향기



고안나 시인의 '詩냇물'

동백꽃 유감

벌린 입 미처 다물지 못한 채
한세상마감하는 꽃송이
그 중유독 묵고 작은 입술 하나
무어라 할 말 있다는 듯
내 발길 붙잡는다
허리를 굽히라
더 낮추라
그래야들을 수 있는 저들의 소리

살만한 세상
아주 잡깐 한풀의 자체였던
순간들이 절정이었다
나지막이 속삭인다
그 사랑스러운 입
그 고백 외면하지 못해서
차에 동승했다

누나야! 우리한테는 쓰레기다
오호 통제라
이 일을 우짜면 좋노
내밀한 마음의 소리 이루나듣나

고안나 作
시당승가·한국문화해외교류협회 부산지회장

▶ 시작 노트

겨울 꽃 하면 당연히 동백꽃을 연상하게 된다. 지심도 동백꽃도 좋고 제주의 동백꽃도 좋다. 해운대 동백꽃을 비롯하여 어딜 가나 카메라의 배경이 되어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겨울 꽃이다. 유독 떨어진 모습까지도 눈을 나게 예뻐서 많은 여운을 남긴다. 동박세처럼 동백꽃 주변을 맴돌며 카메라에 모습을 담는 사람들이 동백꽃처럼 사랑스러운 날들이다.

시의 향기



백성일 시인의 '바람이었다'

봄 물

햇살이 봄을 안고 오는데
구름이 시샘하여 심술부리고
바람은 그냥 따라 춤춘다
그래도,

벗나무가 양팔 흔들며
지난해 악속을 잊지 않고
화사하게 인사한다
흰눈 내리며
서로 살비하고
분홍으로 멍들어가는
내 마음도
봄물 되어 녹아내린다.

백성일 作
'푸른하늘 아래에서' 문학
비·한국문화해외교류협회
경북지회장

▶ 시작 노트

겨우내 움츠린 육신과 생각들이 봄 햇살에 생기가 돌고 몸과 마음도 화사한 벚꽃 향기에 취하고, 화자도 봄물에 설렘에 가득하다.

시의 향기



송귀준 수필가의 '삶의 생각 뒤안길'

경계인

호적부
일본이나 단기연호 서기로 바꿔 필사할 시절
다섯 살이나 적게 호적등재된
딸에 나이 고쳐 증명 발급해달라는
고향 선배
'그건 할수없는 일입니다' 허자
몇 번 사정하다하는 말
'먼저 기내대로 해 먹여라' 했다
실수와 고의
경계를 몰라서였을 게다

사업자 선정에서

공사감독에서
직원인사 등등
돈 먹고 TV 사진 잘 받는 절난 사람들
의무와 권한의 경계 몰라서였을 게다

보고 또 보면서
경계인인 줄 모르는
한심한 공인公人군상

담장 위를 걷는 경계인
떨어지는 날
울가미 기다리고
잘해야 중상일터이니
공공은 떨어지면 안 되는
영원한 경계인

홍성군,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자 3,122명으로 확대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교육 실시

홍성군은 지난 2월 1일 홍성군청 체육관을 활용해 2일에는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5일에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20일에는 홍성시회복지관이 차례로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참여자 교육을 실시하며 노인 일자리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교육은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

신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총 1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보다 556명 증가한 3,122명의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공익형 사업 1개, 사회서비스형 사업 5개, 시장진입형 사업 3개를 추가 신설하여

참여 어르신들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특히 지역사회 내 취약가구 및 복지시설에 대한 돌봄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가스 안전점검, 요양시설 어르신 돌봄, 재가 장애인 생활지원 서비스 등 다수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참여 어르신들에게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올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래 가정 행복과장은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인 민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돋겠다."고 전했다.

김성환 기자

예산군, 체육시설 일부 명칭 변경 및 예산종합운동장 새단장 완료

“매현1체육관·매현2체육관·황새구장으로 불러주세요”

예산군은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예산 종합 운동장 내 생활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구장의 명칭을 각각 매현 체육관, 매현 2체육관, 황새 구장으로 변경했다.

또한 신규 건립된 광시 국민 체육 센터, 덕산 복합 문화 체육 센터, 무한 천 생활 체육 공원 등을 체육시설로

추가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신축사업 시 명칭을 사용 중이던 일부 시설을 명칭을 윤봉길 체육관과의 연관성을 더 히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매현은 예산군을 대표하는 독립 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호이며, 황새는 예산군의 군조다.

도 군은 다양한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를 치르는 예산종합운동장에 대해 총 사업비 13억 원(기금 5억 1000만 원, 군비 7억 9000만 원)을 투입해 △ 야간경관 조명사업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농구장 전면 개보수 △운동장 체육관 석축 보수 △증온동장 트랙보수 등을 마무리해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로 탈바꿈시켰다.

군 관계자는 "명칭이 변경된 매현

1·2체육관, 황새 구장이 군민들에게 더 친근히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공공 체육 시설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한 생활체육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사설

저출생 여파로 급감한 학령인구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는 3만8천 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5년 뒤에는 2만5천 명 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에서는 1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지방소멸 현상의 심화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다. 초·중·고교생 전체 학생 수로 추산하면 앞으로 2년 뒤에는 학령인구가 500만 명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불과 5년 사이 학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학령인구 감소를 복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유치원의 폐원이 급증하고 올해 교내에 학급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교권침해 등의 원인도 있지만 인구 감소로 미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히 유아·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업종들이 시장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동네에서 소아과나 산부인과 병원 찾기가 어려워 아픈 아이를 안고 새벽부터 대기하는 소아과 오픈랜도 심각하다. 맞벌이 부모들은 집에서 면 여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등원시키느라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나오

고 출산장려금도 계속 오르고 있지만 출생률에 거의 변화가 없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혼인·임신·출산·육아에 대해 도무지 긍정적이지 않다. 혼인율이 낮고 혼인연령이 늦춰진 것은 물론 혼인을 하고도 출산을 하겠다는 의지가 거의 없다. 자녀를 낳아 키우기 힘든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경력이나 전문 능력을 헛생기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것이다. 특히 양육 시스템의 부족과 높은 교육열, 과도한 경쟁 등을 감안하여 시작도 하기 전부터 자신감을 상실한 젊은 부부들이 많다.

유아를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과 우려가 발목을 붙잡는 현실이다. 초기 출산·초고령화 사회가 성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생률이 2명대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년 기준 0.7명대다. 국가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하기만 한 현실이다. 이제 출산과 양육을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영역에만 맡기는 수준을 넘은 것이다. 사회와 국가의 둘이 절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쇠락은 불보듯 빤한 일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사 집단행동은 옳지 않다

대형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해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에 이르는 전공의들이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환자 수술 및 진료 차질은 불가피하다.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의사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벌어진 사태다.

지난 16일 '국립' 병원(서울의 5대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나섰다. 대전 등 다른 지역 병원 전공의들도 동참할 조짐이다. 이미 사직서 제출은 시작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상당수 전공의들은 복귀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반발 기류가 커서 집단행동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들은 환자의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확대되며 진료 차질과 수술 지연 등 사태는 종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임

정부가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강 대 강' 대치로 애민 환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응급 및 중증 환자의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 집단행동에 대해선 원칙으로 대응하되,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 정책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대화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우호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견디 더 많다고 답했다. 환자·시민 단체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부정적인 여론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집단행동보다는 국민 설득이 먼저다. 그럼에도 의협 회장을 지낸 인사들이 SNS에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올려 비난을 샀다. 아래서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나. 의사 단체는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국민 건강권이 우선이다.

대덕구, 나눔 텃밭 분양 오는 29일까지 접수

송촌체육공원 등 167구획… 4~11월 운영·내달 18일 대상자 발표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오는 29일까지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나눔 텃밭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농업 체험과 생활적 여가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나눔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나눔 텃밭은 송촌체육공원 2곳(선비미을 1단지 및 2단지 인근과 범동 4평면 세아 아파트와 조차장 인근 산책로 사이 1곳으로 167구획(1구획 10㎡ 내외)을 분양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대덕구 도시농업 홈페이지 www.daedeo.kg.or.kr/ajp/UAP.do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한 가족 구성원이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한 명이 여러 텃밭에 신청할 시 추첨 및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자 선정은 부자위 전산 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최종 선정자는 3월 18일에 대덕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눔 텃밭 운영은 4월부터 11월 말까지로 사용료는 3만 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 장애인 등은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종구 대덕구청장은 "우리 대덕의 나눔 텃밭에서 내 손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라며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E-mail: d-mail@hamal.net
▶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비른신문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김우영·김성식·김종복
전화내선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내선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 5000원

등록번호: 대전기 00017 인쇄처: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16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대전투데이

거성 노희섭 양양디너콘서트 액티브퀸 2월의 신부 웨딩쇼



2024
2.22
목
오후 7시

장소 : 액티브퀸모델협회 공연장

문의 010-8523-9740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44 VIP 25만원